

칼빈의 십계명 이해와 사회윤리

신 원 하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I. 개혁주의 교회역사와 십계명의 위치

1. 기독교회와 십계명
2. 칼빈과 십계명
3. 개혁교회와 십계

II. 칼빈의 십계명 구분

III. 감사와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

1. 은혜의 선물로서의 십계명
2.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과 안내로서의 십계명

IV. 칼빈의 십계명 해석 원리

V. 십계명 이해의 핵심 열쇠: 그리스도

VI. 십계명, 황금률 그리고 형평(equity)

VII 칼빈의 사회관과 사회윤리

VIII 십계명과 개혁주의 윤리학의 과제

IX. 한국 칼빈신학 전통의 교회를 위한 묵상과 제안

1. 정리
2. 한국 교회를 위한 제안

• ABSTRACT •

Calvin's understanding of the Decalogue provides a significant clue for understanding his theology and social ethics. Calvin thinks that the Decalogue is the norm of righteousness for people who have already been delivered. For Calvin, obedience of God's law is the expression of gratitude that people have toward God. His theological ethics put such great emphasis on the normative function of the law that he was criticized for conceiving of God's will in terms of biblical literalism. But, he approaches the Decalogue in the light of Christ's teaching. Calvin connects Jesus' summary of the law to the golden rule. That is, the golden rule directs one to properly love one's neighbor. Calvin understands the essence of the golden rule to be equity. For him, equity, which is sometimes identified as justice tempered by mercy and clemency, serves as the rule for implementing love in social life.

Calvin seeks to uncover the positive and social implications veiled by the negative commands, and vice-versa. His theology of and expositions on the Decalogue show what his social vision and ethics are. Celebrating the 500th anniversary of Calvin's birth, the Presbyterian Church of strong Reformed theology in Korea is required to study again seriously what he taught through the Decalogue, and needs to be challenged to be a reforming Reformed church—a church that will pursue justice and love more than before.

I. 개혁주의 교회역사와 십계명의 위치

1. 기독교회와 십계명

십계명은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기독교 교리문답의 핵심이다. 십계명은 단순히 교리만이 아니라 신자들이 살아야 도덕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명령되어 있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십계명은 율법의 율법으로 일컬어질 만큼 구약성경에서도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그리고 이미 예수와 사도들이 신자들의 삶에 관해 가르칠 때 이것을 인용할 만큼 권위 있는 규범으로 사용되었다.¹⁾ 16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십계명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자다”라고 말한 바 있다.²⁾ 일반사회에서도 십계명은 기독교의 상징적 교리로 취급되어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이래로 예배와 신앙교육 면에서 십계명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에 비교한다면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³⁾ 11세기 이후에 이르러 서방교회가 점점 교리문답을 강화하게 되면서 십계명은 가치와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함께 십계명을 신앙교육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으로 다루면서 십계명은 점점 교리 문답의 중심적인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게 되었다.⁴⁾ 이런 분위기는 종교개혁 시기에 이르러 더

1) J. Douma,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the Christian Life*, trans Nelson Kloosterman (Phillipsburg, New Jersey: P & R Publishing Company, 1996), 381.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한 청년에게 우선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구약의 두 번째 돌판을 언급했다. (마19:18~20), 바울도, 야고보도 구약 십계명 내용에 호소하며 권면하였다(롬13:8~10; 엡 6:2f; 약2:11).

2) 루터의 대교리문답(1529) 서문을 참조하라. Martin Luther, *Luther's Large Catechism*, trans. by J. N. Lenker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Company, 1967).

3) David Clyde Jones, “The Law and the Spirit of Christ,” in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d. David Hall and Peter Lillback (Phillipsburg, New Jersey: P & R Publishing Company, 2008), 303.

강화되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외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은 더욱 강조되었고, 신자들의 삶을 위한 가장 핵심적 윤리 현장으로 인정받았다.

2. 칼빈과 십계명

십계명을 예배와 교리문답의 중요한 부분으로 복귀시키는데 루터가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⁵⁾ 아무래도 최고로 공헌한 개혁가는 존 칼빈(1509~1564)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했고⁶⁾ 하나님은 “율법의 명령들”을 통해 당신의 “영원한 뜻이 무엇 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가르쳤다. 그는 율법은 신자들의 삶을 위한 궁극적인 삶의 규범이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에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다.⁷⁾ 그는 십계명은 그 율법의 요약으로 간주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1536, 1539), 『제네바 교리문답』(1545), 『오경 주석』 그리고 『신명기 설교』 등 여러 저술을 통해서 그의 십계명 신학을 정교히 선보였다. 그는 기독교 강요와 교리문답서에서 십계명을 다루었고 이후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16차에 걸쳐 십계명을 강해하며 신자의 삶에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설교했다.⁸⁾ 출애굽

4) 아퀴나스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신조를 믿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해야만 하고 이어 무엇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즉 십계명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맥락에서 강조했다. Paul Grimley Kuntz, *The Ten Commandments in History: Mosaic Paradigms for a Well-Ordered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62.

5) 루터는 그가 만든 대교리문답(1529)에서 십계명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보다 먼저 배치했다.

6)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2, VIII, 59, 51.

7) *Institutes*, 1, XVII, 2.

8) Benjamin W. Farley, “Introduction,”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 and trans. Farley (Baker Book House, 1980), 26.

기에서 신명기까지를 다룬 그의 주석은 각 율법들을 십계명의 차례에 따라 재조합하고 배치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이다.⁹⁾ 칼빈은 예수의 산상수훈도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도 십계명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주석했다. 이 모든 예들은 칼빈이 십계명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할 수 있다. 칼빈이 십계명을 신자의 삶을 위한 완벽한 의의 규범으로 또 하나님의 뜻의 명시적 표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3. 개혁교회와 십계명

칼빈 신학의 영향아래 있는 개혁 교회들은 십계명을 교리와 예배에서 중시해왔다. 개혁 교회의 표준 교리문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1562)과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1647)은 십계명을 자세히 다루고 가르친다.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십계명을 52개 문답으로 다루면서 10개 문답으로 구성된 주일에 관한 교리보다 더 길게 취급했다. 그러나 현대로 내려오면서 십계명은 기독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게 개혁주의 신학전통에 속한 교회 내에서도 예배나 교회 교리문답에서 그 위치와 역할이 축소되어왔다. 최근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본 논문은 칼빈의 십계명 이해와 신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배의식을 분석하여 살펴볼 것이고 나아가 이것이 그의 사회 윤리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후 칼빈의 신학과 윤리학이 개혁주의 윤리학의 방향과 과제에 시사하고 도전하는 의미를

9) John Calvin, *Commentaries of the Last Books of Moses Arranged in the Form of a Harmony*. Translated by Charles William Bingham, 2 Vol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Bingham의 서문을 참고하라.

10) Calvin Van Reken, "Hanging and Obeying God' Law," in *Reformed Worship* 83 (March 2007), 28.

짚어 보고 마지막으로 한국 장로교회에 던지는 질문과 과제가 무엇인지 성찰해볼 것이다.

II. 칼빈의 십계명 구분

칼빈은 구약성경 출20:2~17과 신5:6~21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10개의 계명으로 구분했고 두 돌판으로 나누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첫째 돌판과 나머지 계명의 둘째 돌판을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요약한 것(마22:37~40)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¹¹⁾

칼빈은 유대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루터가 10계명을 나눈 것과 달리 10계명을 나누었다. 칼빈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출애굽기 20장 2-17절의 내용을 서론과 열개 계명의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를 제1계명으로 분류했는데, 칼빈은 이것을 서론으로 취급했다. 그 이유는 2절이 구체적인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영광중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한 사실을 부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칼빈은 이해했기 때문이다.¹²⁾ 칼빈은 3절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와 4~7절 “네 앞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을 각기 제1계명과 제2계명으로 분리하여 구분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는 이것들을 모두 함께 묶어 제1계명으로 보았다. 유대교도 이것을 묶어서 제2계명으로 보았다. 이들은 3절의 “다른 신들”(no other gods)과 4~6절의 “아무 형상”이 동일한

11) *Institutes*, 2, VIII, 11.

12) Calvin, *Comm. Exod.* 20:2 (Baker, 1979; 339). 앞으로는 페이지만 기술할 것이다.

것을 가리킨다고 판단하고 이 구절들은 모두 하나의 계명에 관한 명령으로 보았다. 그러나 칼빈은 3절은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것에 관한 내용이고, 4~6절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에 관한 내용으로서 서로 별개의 내용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그는 이것을 각기 독립된 계명으로 간주하면서 제2계명과 제3계명으로 나누었다.¹³⁾

루터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칼빈이 제10계명으로 나눈 17절의 내용을 제 9계명, 제 10계명의 별개의 계명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 것’은 각기 서로 다른 명령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하지 말지니라.”(you shall not)는 금지 명령 구절이 각각 나오고 명령의 내용도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구분은 석의적인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그 구절은 비록 소유, 재산, 소, 아내, 집 등을 나누어 놓았지만 그 명령들은 모두 “같은 것들”에 향해진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그것들은 음행이거나 도둑질이거나 “모든 경건하지 못한 욕망”들을 금하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¹⁴⁾ 이점에서는 유대교도 칼빈처럼 이것을 단일한 계명으로 보았다.¹⁵⁾

13) *Comm.* Exod. 20:3(475); Exod. 20:4~6(106~109). 칼빈은 4~6절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해야 하고 세상의 어떤 형상에 따라 만들거나 또 그 만든 형상에게 절하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제1계명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명령으로 보았다.

14) *Comm.* Exod. 20:17(187); *Institutes*, 2, VIII, 12.

15) J.H. van Wyk,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in *Our Reformational Tradition*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4), 270.

III. 감사와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

1. 은혜의 선물로서의 십계명

칼빈은 율법을 언약의 맥락에서 주어진 은혜의 선물로 이해한다.¹⁶⁾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스스로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 곧 ‘구원하신 자’로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칼빈은 중시한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해 내시고 이후에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따라 후손인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 구원하신 분임을 칼빈은 강조한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성취한 자이심을 드러내신 사실은 율법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처럼 은혜 언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칼빈은 해석한다. 그러기에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은 은혜 안에서 주어진 언약의 선물이요, 또 은혜로 향해 나아가도록 제정된 의의 규범이라고 칼빈은 이해하고 해석한다.¹⁷⁾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원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사실을 칼빈은 부각한다.¹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지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하나님

16) *Institutes*, 2. VII. 2. 칼빈은 십계명은 “값없이 양자 삼는 그 언약과 함께 은혜로 주어진”(“graced with the covenant of free adoption”) 것이라 표현했다.

17) James Torrance, “Interpreting the Word by the Light of Christ or the Light of Nature?: Calvin, Calvinism, and Barth,” in *Calvinian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ed. Robert Schnucker (Kirksville, Mo. :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258;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a. : Pickwick Publications, 1992); David Clyde Jones, “The Law and the Spirit of Christ,” 310

18) 칼빈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배운망덕 하는 아들의 유비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한 것도 사실 감사와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과 공경의 삶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Institutes*, 2. VIII. 14. 15.

의 백성을 삼으시고 구원하셨고 계명을 주셨으니, 그들은 당연히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명령을 행하며 살 것(신7:6~9)을 모세가 명령했는데, 칼빈은 이 구절을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임을 잘 나타내주는 근거내용으로 이해한다.¹⁹⁾

칼빈이 율법을 은혜와 감사의 차원에서 이해한 것은 그가 쓴 주석들, 제네바교리문답, 기독교 강요, 그리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의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서들의 내용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혁교회의 표준문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트 대교리문답』이다.²⁰⁾ 특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교리를 세부분 즉 ‘인간의 죄와 비참’, ‘인간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삶’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는데, 십계명은 제3부 감사의 삶에 관한 부분에 배치해서 다루었다. 이 문답서는 신자들이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 자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친다.²¹⁾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제1문답부터 신자의 삶을 감사의 삶의 관점에서 가르친다. 제1문답은 먼저 “사나 죽으나 인생의 유일한 위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나의 유일한 위안은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

19) *Institutes*, 2. VIII, 14.

20) John P. Burgess, “Reformed Explication of the Ten Commandments,” in *The Ten Commandments: The Reciprocity of Faithfulnes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04), 86; Allen Verhey, *Living the Heidelberg: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the Moral Life* (Grand Rapids: CRC Publication, 1986), 5.

21) *Heidelberg Catechism* Q&A 86. Klooster는 이 문답의 성격을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함을 나타내는 표현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가르치는 십계명 문답 부분을 미리 맛보게 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한다. Fred H. Klooster, *Our Only Comfort: A Comprehensiv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2001), 925.

살”을 고백하고 난 뒤 곧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하게 하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금부터 온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그를 위해 살아가도록 한다.”고 대답한다. 즉 구원자에 대한 감사함 (thankfulness)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 즉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²²⁾ 이처럼 이 교리문답은 1문답에서부터 계명과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친다. 칼빈과 그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는 이처럼 십계명을 감사의 삶의 차원에서 이해해 왔고 그 기초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신학과 윤리학을 발전시켜 왔다.

2.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과 안내로서의 십계명

칼빈은 십계명을 “모든 의의 가장 완전한 규칙”이며 그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규범으로 강조한다.²³⁾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과 덕을 이방에 나타내어야 할 백성으로서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의로운 삶을 통해 그것을 증거 해야 했다. 율법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가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칼빈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끈고해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사그라지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신자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여 다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돕는 짜찍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⁴⁾ 즉 율법과 십계명은 신자의 우둔함을 깨우쳐 지혜롭게 하고, 신자의 눈을 밝게 해주고(시19:7~8), 거룩한 삶으로 안내해주는

22) Verhey, *Living the Heidelberg*, 101~102.

23) I. John Hesselink,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 featuring Ford Lewis Battles' translation of the 1538 Catechism*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7), 11.; *Institutes*, 2. VIII, 15.

24) *Institutes*, 2. VII, 12.

등과 빛으로(시119:105), 때로는 채찍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칼빈이 공예배에서 십계명을 사용할 때도 이러한 기능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 칼빈은 부처(Buccer)를 이어 스트라스부르크에 부임하여 1539년부터 교회에서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초기에는 부처의 예배의식을 그대로 존중했다.²⁵⁾ 그러나 점점 십계명을 공 예배의 순서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의식으로 발전시켜갔다.²⁶⁾ 당시 개혁자들은 예배에서 십계명을 참회와 관련하여 사용했다. 부서는 십계명을 자비송인 Kyrie(주여 공홀히 여기소서) 영창과 함께 읽거나 부르도록 십계명을 참회와 연관해 배치했었다. 루터와 대부분의 루터교회들과 독일 팔트 지방의 개혁교회들도 이에 관해서는 마찬가지였다. 교회들은 십계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료로 사용했다. 당연히 십계명낭독 내지 영창 순서 뒤에 사죄의 선언(Absolution)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칼빈은 십계명의 위치를 사죄의 선언 직후에 배치했다. 그는 구원받은 신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표시로 십계명을 따라 행해 나가는 것으로 보았기에, 사죄선언 뒤에 다짐과 안내의 차원에서 십계명 순서를 배치한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십계명

25) 1520년대 중반 이후 약 15년 동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 전임자로 사역했던 개혁자 부처가 십계명을 예배 순서에 집어넣었다. 물론 십계명이 고정적으로 예배 순서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 영향은 그 지역과 개혁교회 전통에 큰 흐름을 만들어 내었다. James Hastings Nichols, *Corporate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55~56.

26) Ibid., 57;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114~5. 십계명은 칼빈 이후 예배 의식에서 때로는 시편 낭송으로 대체되곤 하다가 17세기에 프랑스 지경의 개혁 교회에서 점차로 예배의 한 부분으로 고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영국, 스코틀랜드의 칼빈주의 전통에서 있는 교회들도 이런 경향으로 나아갔다. 최근의 현대교회에서는 점점 예배의식의 단순화 및 자유로운 형식이 선호되면서, 예배의식에서 십계명의 중요성과 사용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특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칼빈주의 전통의 교회들에서는 예배 의식에서 십계명 교독과 영창을 중요한 순서로 채택하고 있다.

을 거룩한 삶으로 안내하는 의의 규범 즉 율법의 제삼 용법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사용했다.²⁷⁾ 이런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칼빈은 십계명을 사제나 목사가 강단에서 낭독하고 회중은 수동적으로 듣는 방식 보다는 오히려 온 회중이 그것을 함께 읽거나 노래하는 것을 더 좋아 했다.²⁸⁾ 그것은 칼빈이 신자의 일체된 예배를 강조하는 의식을 선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회중이 함께 읽고 노래함으로 스스로가 언약백성이라는 자각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²⁹⁾

IV. 칼빈의 십계명 해석 원리

칼빈은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인간의 전통과 생각보다 우선 성경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 그는 십계명 해석을 위한 원리를 여러 곳에서 제시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것을 정리해 보자.³⁰⁾

27) John P. Burgess, "Reformed Explication of the Ten Commandments," in *The Ten Commandments: The Reciprocity of Faithfulnes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04), 87.

28) 칼빈은 이를 위해 십계명에 곡조를 붙였고 이것을 공예배 시간에 사용하기를 선호했다.

29) Calvin Van Reken, "Hanging and Obeying God' Law," in *Reformed Worship* 83 (March 2007), 29.

30) 물론 칼빈이 그가 해석 원리의 특정 목록을 순서와 숫자를 붙여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그의 흠여진 글에 나타난 해석의 원리의 개수나 내용을 약간 차이나게 분류하기도 한다. Hesselink는 3가지로 분류하되 세 번째 원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져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분류하기도 했다. I. John Hesselink, *Calvin's First Catechism: a commentary : featuring Ford Lewis Battles' translation of the 1538 Catechism*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7), 78~9.; *Calvin's Concept of the Law*, 112~3. 그리고 Farley 교수는 칼빈의 십계명 설교를 편집하고 번역한 책의 서문에서 해석원리를 8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기도 했다. Benjamin W. Farley, "Introduction,"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 and trans. Farley (Baker Book House, 1980), 27~28

첫째, 십계명은 영적인 것이기에(롬7:14) 제정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 해석해야 한다.³¹⁾ 칼빈은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에게 말씀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은 단순히 “외적 행동”(external behaviour)이 아니라 “내적이고 영적인 의”(inward and spiritual righteousness)를 요구한다고 강조한다.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마음의 순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령을 받은 자들은 율법의 제정자(lawgiver)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계명이 요구하는 그 중심을 찾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²⁾ 칼빈은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을 통해 율법을 재해석하여 그 본래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것을 예로 든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지닌 본 내용, 즉 하나님이 원하신 그 내용을 온전히 회복시켰다는 것이다.³³⁾

칼빈은 이 원리를 6계명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6계명은 사람의 생명에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동을 금하는 것을 넘어 영혼의 살인에 해당하는 분노, 미움, 적개심까지도 금하는 명령이라고 해석한다. 인간의 법은 미움과 살의로 가득 차 있다하더라도 단지 죽이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인간 마음의 은밀한 생각까지 제재하고 다스리는 법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따라서 이웃에 대한 미움과 살의와 분노도 이 6계명이 금지하는 명령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³⁴⁾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 노하는 것이 6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해 계명을 해석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귀결로 칼빈은 이해한다.

31) *Institutes*, 2, VIII, 6

32) *Institutes*, 2 VIII, 51

33)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112.

34) 칼빈은 이 절 마지막 부분에서 순결함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Institutes*, II, 8, 6.

둘째, 어떤 형태로 명령이 표현되어 있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찾아 해석해야 한다. 십계명의 계명은 크게 두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대부분 부정적 명령의 형태와 제유법으로 사용되어 있다.³⁵⁾ 칼빈은 부정적 형태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수사법인 “제유법”(synecdoches)이 쓰인 계명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⁶⁾ 칼빈은 이 작업 없이 각 계명을 그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치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한다.³⁷⁾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은 비록 ‘살인’이 언급되었지만 그 의도는 인간 생명에 해를 가하는 죄 전체에 관한 명령이라고 칼빈은 해석한다.³⁸⁾ 이것은 태어나 인생의 말기에 있는 환자의 생명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계명의 궁극적 목적은 살인금지에 만이 아니라 생명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라는 생명존중의 명령 즉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이라고 칼빈은 주장한다.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에 관련된 죄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부부는 결혼관계에서 서로 신실함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 원리를 “우상숭배”(idolatry)를 금하는 2계명에 적용한다. 이 계명은 물리적 형태를 지닌 우상을

35) *Institutes*, 2, VIII, 8.

36)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13.

37) *Institutes*, 2, VIII, 8.

38) 칼빈은 십계명이 제유법을 사용하되 ‘살인하지 말라’와 같이 각 영역에서 최악의 경우를 들어 표현한 것은 보통의 죄를 지칭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즉 6계명에 ‘미워하지 말라’와 같이 미움과 분노라는 표현을 쓰면 사람들이 그 죄의 악함을 깊이 인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살인을 사용함으로써 미움과 분노도 살인의 범주에 드는 심각한 죄임을 인식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Institutes*, 2, VIII, 10.

만들어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낸 갖가지의 상상 속의 미신과 신화를 만들어서 섬기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계명이라는 것이다.³⁹⁾ 그래서 이 두 번째 해석 원리를 가리켜 밴 워크(van Wyk)은 “특정한 것”에서 “일반적인 것”까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⁴⁰⁾ 아울러 이 원리는 반대적 내용의 규칙(the rule of opposites)을 적용하여 계명을 해석하는 것도 내포한다.⁴¹⁾ 긍정적 형태로 주어진 명령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네 부모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셋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령을 담은 두 돌판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각 명령을 해석해야 한다.⁴²⁾ 칼빈은 이 두 돌판은 결코 분리되어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두 부분으로 요약했기에 이미 그의 영의 인도로 이 율법을 가르친 모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⁴³⁾ 칼빈은 이 두 돌판은 서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기에, 한 돌판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면서 다른 돌판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의의 시작이고 토대이기 때문에 첫째 돌판이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 이웃 사랑의 행동은 불안한데 하나님을 의의 심판자로 생각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⁴⁾ 칼빈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는 이웃을

39) *Comm.* Exod. 20:4~6 (107).

40) J.H. van Wyk,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269.

41) *Institutes*, 2. VIII, 8~9.

42) 앞의 두 원리에 비해 이것을 칼빈이 해석 원리로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개 칼빈 율법에 관한 유력한 학자들이 이를 칼빈이 세 번째 해석원리로 제시했다고 간주해 왔다. 대표적으로 Hesselink, Farley, Jones, Haas도 이런 입장을 따르고 있다.

43) *Comm.* Deut 10:12 (190).

사랑하게 마련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의 돌판이 아니고 두 돌판 모두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계명의 각 계명은 늘 두 돌판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계명과 관련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부모 공경이 아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V. 십계명 이해의 핵심 열쇠: 그리스도

칼빈의 십계명 이해의 특징은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그가 제시한 해석을 위한 여러 원리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이어진다. 존스(David Jones)는 칼빈의 입장을 “그리스도 중심적 이해”(Christ-centered understanding)라고 칭했다.⁴⁵⁾ 칼빈의 율법 이해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헤셀링크(Hesselink)도 기독교론적 연관성 없이 접근한다면 칼빈의 십계명 이해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⁶⁾ 칼빈은 『기독교 강요』 1539년판과 1559년판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God the redeemer in Christ)이라는 제목이 달린 2권에서 취급했다. 이 사실은 칼빈이 십계명과 율법은 그리스도와 그의 빛으로 조명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⁷⁾

칼빈은 율법이 은혜의 맥락에서 주어졌지만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44) *Institutes*, 2, VIII., 11.

45) Jones, “The Law and the Spirit of Christ,” 311.

46)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97.

47) *Institutes*, 2, VIII., 7.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또 기다리도록 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한다.⁴⁸⁾ 이는 아브라함 언약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지향했던 것과 같은 차원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율법이 지닌 그리스도 중심성과 지향성은 희생 제사나 의식법에서 나타나지만 또한 도덕법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롬10:4)이 되었다고 말한 것도 그리스도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완전히 성취한 자임을 말해준다는 것이다.⁴⁹⁾ 이처럼 칼빈의 율법과 십계명 해석은 철저히 기독교론적이다.⁵⁰⁾

칼빈은 산상수훈을 분석함으로써 기독교론적 율법이해를 분명히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것과 달리 율법의 문자에 얽매어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이와 달리 사람이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미련한 놈”, “바보”라고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가르쳤다(마5:21-22). 또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7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교정시키면서 본래의 깊은 의미를 드러낸 것이라고 칼빈은 해석한다.⁵¹⁾ 칼빈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묻고, 또 율법의 두 돌판을 다 지켜 행했다고 대답했던 청년에게 내리신 그리스도의 대답과 평가를 아주 중요하게 언급한다. 이 내용은 그리스도가 계명이 요구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칼빈은 본다.⁵²⁾ 그렇기에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율법 해석자”(optimum legis interpretem)라고 불렀던 것이다.⁵³⁾

48) *Institutes*, 2, VII, 1.

49) 2.VII, 2.

50)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98.

51) *Comm. Matthew* 5:19~21.

52) *Institutes*, 4, XIII, 13.

53) *Institutes*, 2, VII, 7.

VI. 십계명, 황금률 그리고 형평(equity)

칼빈이 보여준 기독교적 십계명 해석은 예수의 황금률과 십계명을 연결하는 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그는 복음서 주석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마7:12; 눅6:31) 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마22:39) 십계명의 둘째 돌판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리라고 주장한다.⁵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자신에게 행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둘째 돌판을 성취하기 위한 원리라는 것이다. 이를 6계명에 적용해보면, 이웃이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대로 너도 이웃에게 행하라는 명령이고, 8계명은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보호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소유도 그렇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황금률을 형평(aequitas)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칼빈은 마태복음 7:12절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가 소위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이 땅에는 수다한 불법이 활개 치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형평(equity)을 짓밟으며 살기 때문”임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석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불법으로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형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규칙으로 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칼빈은 이웃 사랑의 삶은 곧

54)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9), 356.

55) 마7:12 주석 라틴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추가된 것): Seorsum ergo legenda est haec sententia qua discipulos Christus ad aequitatem instituit, brevemque & facilem eius definitionem ponit: ut sciamus non alia de causa tot inimicitias regnare in mundo, ac tot modis homines invicem sibi esse noxios, nisi quia scientes & volentes aequitatem pedibus calcant: quam tamen quisque erga se servari rigide postulat. *Ioannis Calvinii Opera quae supersunt monia*, ed. by G Baum, E. Cunitz,

황금률의 원리를 실천하며 사는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칼빈 신학과 윤리학에는 형평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다루면서, 칼빈은 형평이 법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다양한 성격의 법이 있지만 그 법들의 목표는 모두 동일하게 형평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⁶⁾ 칼빈은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형평은 추구되어야 목표이자 동시에 규칙이라고 강조했다.⁵⁷⁾ 이처럼 칼빈은 형평이란 사회적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둘째 돌판을 성취하기 위한 원리이자 규칙으로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형평(衡平)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형평(衡平)은 ‘차우침 없음’(impartiality), 또는 ‘공정’(fairness), 또는 ‘각자에게 속한 몫을 각자에게 속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공정, 정의(justice)와 유사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평은 때론 상황을 참작하여 특정 대상에게 “공활을 덧붙여” 그의 몫을 계산하는 것을 내포 한다. 그것이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다.⁵⁸⁾ 칼빈 학자인 하스(Haas)는 칼빈의 윤리학에서 형평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성격 짓는다. 칼빈 사상에서 ‘형평’은 ‘정의’와 함께 사용될 때가 많다. 두 개념이 매우 밀접한 관계

and E. Reuss (Brunswick: Schwetsche, 1863~1900).

56) *Institutes*, 4, XX, 16.

57) 칼빈은 고리대금에 관련한 시편 15편 5절을 강해하면서, 당신이 고리로 대금 받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남에게도 결코 돈을 빌어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황금률을 적용하여 주석했다. 대역행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정의의 원리 이자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대로의 “형평의 규칙”(the rule of equity)을 준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214.

58) Merwyn Johnson, “Calvin's Ethical Legacy” in *The Legacy of John Calvin*.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2000.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2000), 78.

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 형평의 규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⁹⁾ 하스는 고대로부터 칼빈에 이르기까지 사상가들의 형평개념과 법률들에 사용된 형평의 의미를 분석한 후 그것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⁶⁰⁾ 1) 흠이 있는 실정법의 개정 2) 자연법 3) 법의 해석적 원리로서의 정의 4) 공화로 중재된 법(mitigatio iuris). 그런데 칼빈은 네 개념 중 마지막 세 개념들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데, 그 중 도덕법을 다룰 때는 네 번째 의미로서 형평이란 말을 썼다고 주장한다.⁶¹⁾ 칼빈이 형평을 황금률의 규칙으로 제시한 것을 통해서도 도덕법에 쓰인 형평이란 4번째 개념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하스는 분석한다.⁶²⁾ 앞에서 이미 칼빈은 율법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원리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하더라도 이웃사랑을 위한 형평의 규칙이란 공홀이 중재된 법이요 정의라고 이해하는 것은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둘째 돌판의 명령은 단순히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삶을 뛰어넘는 이웃을 형평으로 대하는 것 곧 그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웃이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기에 더욱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이 십계명을 황금률과 연관시키고 또 공홀로 중재된 정의인 형평의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것은 개혁주의 윤리학이 어떤 사회를 이상으로 하는지 또 어떤 사회윤리를 지향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유추해 낼 수 있다.

59) Guenther Hass, *The Concept of Equity in John Calvin's Ethics* (Waterloo, Ont.: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97), 51.

60) Ibid., 123.

61) Ibid., 72, 124; *Institutes*, 4, XX, 16.

62) Hass, *The Concept of Equity*, 15.

VII. 칼빈의 사회관과 사회윤리

형평개념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십계명은 개인적 도덕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와 사회관계에 관한 도덕을 보여준다. 칼빈의 십계명 이해는 그의 사회관과 구성하는 사회 윤리를 담고 있는 헌장이라고 할 수 있다. 존 버제스(John Burgess)는 칼빈은 십계명을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설교하고 강해했다고 말한다.⁶³⁾ 5계명을 다루면서도, 부모와 권세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개인에 대한 불경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어지럽히고 공공의 복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6계명을 다루면서도 인간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것을 넘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간의 결속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의미로 확대하여 계명을 해석했다. 심지어 하나님 경외에 관한 첫째 돌판까지도 그것이 지닌 사회적 관련성을 빠뜨리지 않았다. 3계명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맹세를 통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해석했다.⁶⁴⁾ 이처럼 각 계명들을 사회적 차원으로 적용하여 해석한 것은 신명기 설교를 읽어보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⁶⁵⁾

칼빈주의 윤리학자 스미즈(Lewis Smedes) 교수는 십계명은 인간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이상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⁶⁶⁾ 그는 십계명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의 10가지 영역(sector)에서 구현되어야 할 윤리적

63) John P. Burgess, "Reformed Explication of the Ten Commandments," in *The Ten Commandments: The Reciprocity of Faithfulnes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04), 89.

64)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Q113., *Heidelberg Catechism* Q&A 101.

65) Benjamin W. Farley, "Introduction,"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 and trans. Farley (Baker Book House, 1980), 14.

66) Lewis Smedes, *Mere Morality: What God Expects from Ordinary Peopl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14.

질서를 제시한 현장으로 보았다. 특히 둘째 돌판은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명령으로 이해했다.⁶⁷⁾ 그래서 7계명조차도 배우자에 대한 배타적인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개인적 윤리의 명령이면서 사회가 구현해 가야 할 의무라고 설명한다.⁶⁸⁾ 이처럼 스미즈는 십계명이란 개인의 도덕을 각 영역에서 형평으로서의 정의가 구현되고 이웃의 권리가 보장되고 도모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윤리의 현장으로 이해할 것을 주문한다.

그런데 이 사회적 비전에는 약자도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형평의 원리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칼빈은 이런 사회관은 기독교 사회든 아니든 관계없이 모든 사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백성이 지향해야 할 미래를 위한 제사장적 나라라는 사실에서 유추될 수 있다. 따라서 칼빈주의 윤리학은 형평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따르고 추구해야 할 명령이요 과제라고 생각한다.⁶⁹⁾ 그렇다면 교회와 국가는 비록 서로 다른 두 주권의 영역이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도모하는 데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칼빈 사회 윤리의 중요한 틀이다.⁷⁰⁾ 따라서 교회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하도록 격려하고 감독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칼빈은 정부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약한 자들의 삶과 권리를 잘 보장하고 돌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 사회로 평가받기 위한 핵심적 구성요소라고 보았다.

67) Ibid., 16.

68) Ibid., 15~16.

69) Ibid., 13.

70) W. Fred Graham,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71), 61~2.

VIII. 십계명과 개혁주의 윤리학의 과제

칼빈의 십계명 이해를 통해 유추한 사회관과 사회윤리를 이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개혁주의 윤리학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큰 그림과 아울러 구체적인 면에서 취해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각 계명에 관련된 영역에서 도덕적 사회적 문제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범위(scope)의 경계에 대해 규정하는 안내하는 해석학적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지구촌의 주요 이슈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과연 십계명의 8계명과 관련하여 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자유시장(free market) 체제문제, 경제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후진국과의 교역에 관련된 국제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첨예하게 부각되는 문제,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기업운영 문제 등은 8계명과 관련이 없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있다면 어떤 선과 내용까지 기독교 윤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인지에 그 범위를 정해주는 해석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둘째로 각 영역에서 현재 지구촌과 우리 사회에서 새로 발생하는 실제적인 사회 문제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윤리적인 처방을 제공하는 과제를 감당해야 한다.⁷¹⁾ 예를 들면 생명공학기술의 진보로 생명의 탄생과 조작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라 생명과 건강에 관계된 여러 의료 행위와 실험 행위에서 윤리적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줄기세포 및 배아실험 연구는 가능한가? 이것은 6계명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국가가 공적 기금을 제공하는 것을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www.kci.go.kr

71) Smedes, *Mere Morality*, 17.

이에 대해 교회는 신학적 윤리학적 성찰과 간학문적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 그에 기초해 윤리적 지침을 만들어 신자와 교회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강대국의 개혁교회와 약소국의 개혁교회는 이런 사안들을 함께 협력하여 연구해서 윤리적 지침을 교회에 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신학적 윤리학적 지침이 제공되면 교회는 교단과 국제적 교회 기구들을 통해 국내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호소하여 교회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효과적으로 이 사회에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IX. 한국 칼빈신학 전통의 교회를 위한 묵상과 제안

1. 정리

칼빈은 율법과 십계명을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한 의의 규칙으로 보았다. 동시에 은혜(grace)에 대한 감사(gratitude)를 표현하는 방편임을 강조했다. 교회 역사가운데 개혁교회의 예배에서 십계명이 사죄의 선언 후에 배치된 것도 십계명에 대한 칼빈의 이와 같은 신학의 영향 때문이었다.⁷²⁾ 칼빈은 십계명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취급해 나갔다. 율법은 처음부터 은혜로 주어졌고 그리스도를 가리켰기에, 십계명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이해할 때 그 의미가 온전히 드러난다. 칼빈이 그토록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결코 율법주의적 경향을 보

72) 화란개혁과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는 이런 전통을 존중하면서 십계명 낭독과 영찬은 아예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설교를 듣고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교회 문을 나서야 하는 교인들을 생각한다면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James De Jong, *Into His Presence* (Grand Rapids, MI: Christian Reformed Church Publication, 1985), 64. 이 책은 『개혁주의 예배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지 않았던 것도 계명들을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을 규범으로 아주 강조한 칼빈의 해석을 율법주의적 태도로 비판하는 것은 칼빈 신학과 개혁주의 전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항변할 수 있다.

칼빈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황금률로 요약하면서, 그 황금률에 형평의 개념을 연결시켜 십계명 윤리를 전개했다. 칼빈이 형평을 주요한 개념으로 그의 사회 윤리에 활용하여 전개한 것은 그의 윤리적 지평이 결코 개인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로 확대되는 탁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개혁주의 윤리학은 개인윤리에 머물 수 없고, 늘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는 진보적 윤리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칼빈이 강조한 형평의 규칙에 근거한 사회는 단순히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넘어서, 약한 자에게 생존을 보장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다른 어떤 신학 전통에 속한 교회보다 국가의 적극적 기능을 강조해 왔고 이에 대한 신자의 참여와 교회의 비판적 지원을 강조해 왔다.

2. 한국 교회를 위한 제언

한국 장로교회는 칼빈과 개혁교회가 십계명을 우리의 개인적 삶과 사회윤리적 삶을 위해 중요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강조해온 것임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개혁교회는 예배시간마다 십계명을 노래함으로 자신들이 언약백성임을 재확인하고 동시에 그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권고해 왔다.⁷³⁾ 오늘 한국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교회가 십계명

73) 칼빈은 십계명을 사제가 강단에서 낭송하는 것이 아닌 신자들이 함께 부르도록 곡을 붙인 것도 이런 의식을 강화하고자 한 의미도 있다. 물론 그가 한 몸으로 동참하게 하는 예배(corporate worship)를 중시한 것도 십계명 영향을 하게 한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John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Its Development and Form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6), 113.

을 점점 소홀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십계명을 강조하면 마치 율법주의로 기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한 원인이지만 십계명의 의미, 가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교회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교회에서 십계명을 중시하고 연구하고 강해하는 분위기가 다시 진작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 행동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장로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는 “산위의 동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 사회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신자들이 성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일반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수준의 윤리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칼빈이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완전한 의의 규범이라고 칭했던 십계명과 그 명령의 깊은 뜻을 더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다. 동시에 그 계명에 따라 각 영역에서 살아 가려는 운동이 새로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운동은 결코 부담에서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속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서 말미암는 그 하나님께 “신속하고 진실하게(prompte et sincere) 마음을 바치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and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John Calvin, *Commentaries of the Last Books of Moses Arranged in the Form of a Harmony*. Translated by Charles William Bingham. 2 Vol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Book of Psalms*. trans.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trans. William Pringl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9)
- Martin Luther, *Luther's Large Catechism*. trans. by J. N. Lenker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Company, 1967)
- Allen Verhey, *Living the Heidelberg: The Heidelberg Catechism and the Moral Life* (Grand Rapids: CRC Publication, 1986)
- Benjamin W. Farley, "Introduction," *John Calvin's Sermons on the Ten Commandments*. ed and trans. Farley (Baker Book House, 1980)
- Calvin Van Reken, "Hanging and Obeying God' Law," in *Reformed Worship* 83 (March 2007)
- David Clyde Jones, "The Law and the Spirit of Christ," in *A Theological Guide to Calvin's Institutes*. ed. David Hall and Peter Lillback (Phillipsburg, New Jersey: P & R Publishing Company, 2008)
- Fred H. Klooster, *Our Only Comfort: A Comprehensive 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2001)
- Guenther Hass, *The Concept of Equity in John Calvin's Ethics* (Waterloo, Ont.: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1997)
- I. John Hesselink,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a. : Pickwick Publications, 1992): David Clyde Jones, "The Law and the Spirit of Christ"
- James De Jong, *Into His Presence* (Grand Rapids, MI: Christian Reformed Church Publication, 1985)

- James Hastings Nichols, *Corporate Worship in the Reformed Tradi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8)
- James Torrance, "Interpreting the Word by the Light of Christ or the Light of Nature?: Calvin, Calvinism, and Barth," in *Calviniana: Ideas and Influence of Jean Calvin*, ed. Robert Schnucker (Kirksville, Mo. :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 J. Douma,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the Christian Life*, trans *Nelson Kloosterman* (Phillipsburg, New Jersey: P & R Publishing Company, 1996)
- J. H. van Wyk,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in *Our Reformational Tradition*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4)
- John Maxwell,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Its Development and Form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6)
- John P. Burgess, "Reformed Explication of the Ten Commandments," in *The Ten Commandments: The Reciprocity of Faithfulnes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04)
- Lewis Smedes, *Mere Morality: What God Expects from Ordinary Peopl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3)
- Merwyn Johnson, "Calvin's Ethical Legacy" in *The Legacy of John Calvin*.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2000.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CRC Publications, 2000)
- Paul Grimley Kuntz, *The Ten Commandments in History: Mosaic Paradigms for a Well-Ordered Society*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 W. Fred Graham,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71)

논문접수일: 2009. 4. 22.

심사개시일: 2009. 5. 12.

게재확정일: 2009. 5. 20.